교육 칼럼

‘교육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한승훈
교육연합신문 논설위원/동신대 교수

문재인 통합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려있고, 일거수일투족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행보에 감탄과 환호 속에 매몰되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벌써 국정교과서 폐지라는 큼직한 업적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독재정권의 구시대적 유산이었던 교과서 국정화 사상에 따라 수구정권의 고집스러운 우격다짐으로 급조하여 만들어진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박스를 뜯기도 전에 폐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 총리를 진보진영의 교육감 출신으로 인선하면서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 정부의 행보로 보아 머지않아 입시정책도 발표되겠지만 그동안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융합적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전환될 조짐이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는 인기정책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21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명확한 계획 하에 행해져야만 한다.

현재의 대학 입시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나누어 수시에서는 주로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정시는 주로 수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합격을 판가름하는 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입을 위한 입시준비생들의 학습 방향과 목표는 수학능력시험이 나침반이 되어 왔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현재 그 실태를 보면 문이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수학능력 시험은 외국의 명문대 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영어 문제, 올림피아드 수준의 수학 문제 등이 출제되어 지나치게 심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수학능력을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학능력시험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안겨주고, 창의적인 사고력 행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하는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될 것임은 누구도 반론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4차산업, 3D산업 시대를 앞두고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이들 미래 산업은 융복합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융성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국가의 발전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거라면 모르되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교육도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 바라거늘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 미래를 대비한 교육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교육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TF(테스크 포스)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하여 21세기 선진국이 되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 마련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교육에서부터라도 하루 속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교육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조속히 21세기 교육 비전을 제시할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부 ‘2017 독도 비정상회담 사업’ 협약 실시

교육부는 5월 1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독도 비정상회담 사업을 위한 교육부 및 경상북도, 내일신문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독도교육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 청소년들의 평화 의지를 상징하는 섬으로 만들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독도교육 및 글로벌 홍보 강화,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교육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 자료 제공, 전국 대학 국제협력처 및 어학원 등과 원활한 사업 협조 지원 등을 맡는다.

이어서 경상북도는 사업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지원, 독도재단을 통한 참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받는 기쁨·나누는 행복!

인천 계양지역 밝은 마을 프로젝트, 늘해랑 벽화 봉사단 발대식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제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5월 10일 4개교(북인천여중, 북인천중, 서운중, 인천안남중)가 참여하는 늘해랑 벽화 봉사단 발대식을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학교와 지역 간 연계 봉사활동으로 계양지역 중등 4개교의 학생들과 관할 지역의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늘해랑 벽화 봉사단은 취약 지역 및 학교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사회성과 책임감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계양지역 밝은 마을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4개교 인근 지역에 벽화 그리기를 실시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업에 참여한 오경미 교육복지사는 “평소 학교에서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해 발대식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인천여중 이계한 교장은 “이번 늘해랑 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Show Your Dream!’

인천 해원초, 영어로 풀어보는 재미있는 골든벨 대회 개최

인천해원초등학교(교장 하상용)에서는 지난 5월 10일 5학년 9반 교실에서 ‘2017 해원 영어골든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서구청 비바 잉글리쉬 골든벨 대회에 출전할 해원초등학교 대표 학생을 뽑는 동시에 해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상식 문제 풀이 실력을 뽐낼 좋은 기회가 됐다.

6학년 권모 군은 마지막 라운드인 23라운드까지 생존해 집중력 있는 듣기 실력과 흔들림 없는 정답 선택의 저력을 보여 줬다.

이여임 영어교육담당교사는 “이 대회를 통해 영어 상식 및 영어 어휘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영어 입력 및 출력의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 증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상용 교장은 “학생들이 영어로 문제를 즐겁게 풀어가며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하게 돼 매우 기뻤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생이 다양한 방면에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음식점 위생상태 ★표시로 확인하세요

19일부터 ‘위생등급제’ 시행…식중독예방·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대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실제로 2014~2016년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85건이었으며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 61.8%에 해당하는 671건이었다.

‘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등급별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평가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받는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135-9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청담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사령◆

▲안 숙 녀

命 문화예술사업부 부장

2017년 5월 24일자